



부안임씨중앙종친회보

창간호
2017년 12월 2일

◎ 발행일 : 2017년 12월 2일 ◎ 발행인 : 임종호 010-4734-8002 ◎ 편집인 : 임종상 010-5343-3441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729-1

부안임씨(扶安 林氏) 중앙회보를 창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안 임씨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안 임씨는 3,6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제일의 가문입니다. 중국 삼황오제(三皇五帝)중 첫번째 임금인 황제(黃帝)의 후손으로 세계최초의 국가인 은(殷)나라 왕조(기원전1600여년)의 가문으로 왕자인 비간공(比干公)을 태시조로 모시고

그의 아들 임견(林堅)을 득성 임씨의 시조로 삼고 있습니다. 당나라 한림학사 임팔급(林八及)선조님이 신라 평택의 팽성으로 동도하시어 한국임씨의 도시조가 되었으며 그의 후손이 2000년 현재 243,000가구에 총 762,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의 7세손인 계자미자(季美)를 부안임씨의 본관(本貫)으로 하는 밀직공파(密直公派), 전서공파(典書公派), 판사공파(判事公派)가 2만여 가구에 64,000여명의 인구로 조사되고 있어 놀라운 발전과 성공을 이룬 성씨라 할 것입니다.

이태백(李太白)이 친척에게 쓴 시(詩) 중에서 “동근연지(同根連枝)”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뿌리에 연결된 나뭇가지라는 뜻으로 형제, 자매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부안 임씨는 계미(季美)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하나의 나무에 연결된 가지입니다. 때문에 모든 부안 임씨는 촌수를 떠나 형제 자매이고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되고 핵가족화 되면서 가까운 촌수가 줄어 부안 임씨라는 한 가족이면서 관심이 멀어지고 모르는 남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사의 일은 참여하는 몇 분들과 일부 어르신들만의 전유물인 양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많은 종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합니다. 훌륭한 조상을 발굴하여 알리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우리 가문이 훌륭한 조상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심어 주어 관심을 갖게하고 쉽게 참여 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행사는 축제가 시대적 흐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일년내내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이런 곳에 많은 인파가 몰려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적 흐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상을 모시는 향사는 엄숙하고 어려운 예법으로 인해 젊은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볼거리와 재미 거리를 만들어 가족이 같이 참여하여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제가 부안임씨 중앙종친회장 임기를 지내 오는 동안 역점 사업으로 종친 계파간의 친목과 교류를 우선시 하였습니다. 매년 서하공 시향 후 총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서하 조부님의 묘소 정화공사와 서하 임춘 문화비 건립을 하였습니다. 임성기 한미약품회장의 도움 등으로 진행한 사업은 시향에 참석하는 종인들에게 편리하게 오를 수 있게 계단과 묘역을 정비하였으며 서하공에 대한 그동안의 오해와 왜곡된 점들을 바로 잡았



습니다. 우리나라 고전문학의 대문호이신 서하 조부님을 후손들이 무인(武人)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을 바로잡아 비문에 기록하였습니다. 과거에 여러 번 낙방 하였다는 등의 냉소적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비와 비문은 참배객들에게 볼거리와 배울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부안 송모사의 시향과 세종시의 독락정 시향에 중앙회 임원과 종인들이 많이 참여하며 교류를 증진하였습니다.

이제 더 많은 종인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홍보와 문호의 개방이 필요합니다. 회보를 만들어 널리 보급하여 부안 임씨의 행사와 회의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종인들에게도 알 권리를 충족시켜 더 많은 의견과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앞으로 이 회보가 더 많은 기사와 부수를 늘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유구한 가문의 역사에 선대와 후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참여를 위하여 청년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후원과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 연결을 하여야 합니다. 부안임씨 대동족보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자족보로 간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족보는 현 시대에 가장 적합한 편리성과 추후 개편 및 보정에도 매우 편리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입력해 놓으면 언제고 추가 개편과 배포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기에 젊은 세대들이 관심있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안임씨는 사회생활 중에서 쉽게 만날 정도로 많은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서로가 만나 누구의 후손인지를 몇 대손 인지 대화를 나누다보면 “동근연지(同根連枝)” 형제 자매의 가족애가 생길 것입니다. 지난 4년의 임기를 마치며 항상 머리에 남는 기억은 “부안 임씨 우리는 하나다”입니다.그동안 함께했던 임원들께 감사드리고 차기 판사공파 임한석회장님께서 더 많은 발전 이루시기를 바라며 새해 무술년에 우리 부안임씨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7년 12월 2일

부안 임씨 중앙종친회 회장 임종호

결산보고

부안임씨 중앙중친회(2016. 01. 01 ~ 2017. 07. 10) 결산서

(1) 수입 과 지출 총괄(2016년도)

○ 2015년도 이월잔액 : 10,945,300원
수 입 액 : 18,045,717원
지 출 액 : 22,396,000원
○ 2016년 12월 31일 : 6,595,017원

(2) 수입과 지출 내역(2016년도)

○ 수 입

월 일	적 요	금 액	비 고
2015년 이월	이월잔액	10,945,300	
16. 11. 10	수입이자	27,063	
	한미약품임성기회장	15,000,000	
16. 11. 15	임중호회장	2,000,000	
16. 11. 25	임창용대구회장	1,000,000	
계		28,972,363	

○ 지 출

월 일	적 요	금 액	비 고
	요역청화	10,500,000	
16. 08. 30	지방임원 교통비	180,000	
16. 08. 30	이사회 식대	216,000	
16. 11. 15	문학비 건립	10,000,000	
16. 11. 15	문학비제막행사비	1,500,000	
계		22,396,000	

1. 수입과 지출 내역(2017년도)

○ 수 입

월 일	적 요	금 액	비 고
2016년 이월	이월잔액	6,595,017	
17. 12 01	수입이자	18,654	
계		6,613,371	

○ 지 출

월 일	적 요	금 액	비 고
17. 07. 18	지방임원 교통비	210,000	
17. 07. 18	이사회 식대	447,000	
17. 12. 01	중앙회보	1,100,000	
계		1,757,000	

2. 2017년 이월잔액 : 4856,371원(판사공 송금)

감 사 보 고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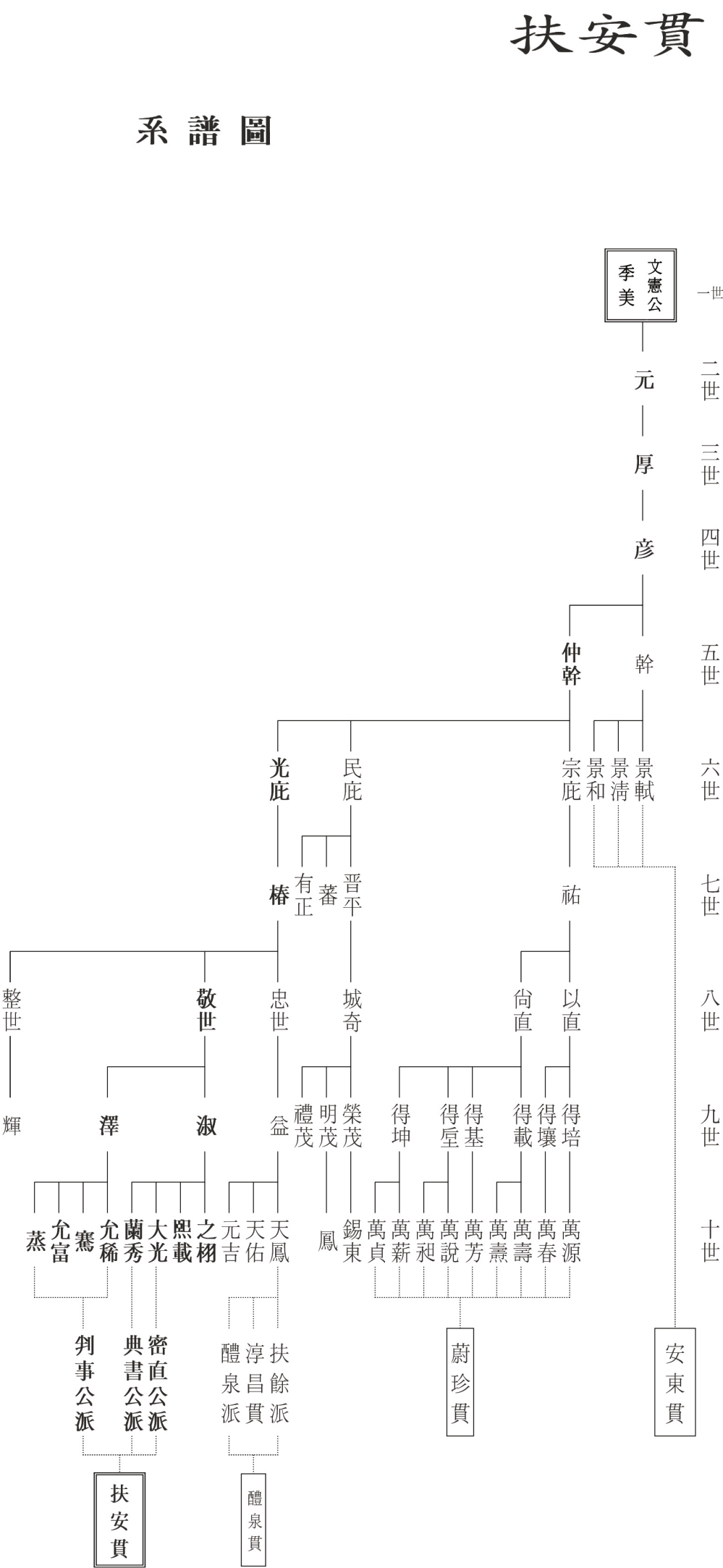
부안 임씨 중앙회 회칙에 의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 과 지출 내용이 일치하고 각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정함을 인정함.

우리 부안임씨 중앙중친회의 첫 사업으로 서하공 묘역 정화 공사와 서하 문학비를 건립하여 종인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하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더욱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자부심으로 후손에게 선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안임씨 중앙중친회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연속을 통하여 각 계파 간의 의견이 통일되고 한 조상의 후손으로서 더욱 단합 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7 년 11 월 27 일

감 사 : 임 현 성

감 사 : 임 종 근



扶安林氏中央宗親회보 創刊을 祖賀합니다.



존경하는 부안 임씨 종친 여러분.
전국임씨중앙회 회장 임완수(林完洙)입니다.
종친들께서 건강하시며 정유년(丁酉年)에 계
획했던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계
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부안 임씨 전서공(典書
公)의 자손(子孫)입니다. 부안 임씨 종친회에
서 종보(宗寶)를 창간(創刊) 한다는 소식을 접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부안 임씨 종친회는 숭조정신(崇祖精神)을 계승하며 상호간 상부상조
로 종친회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임씨(扶安林氏)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기 1030년
고려 현종(顯宗) 때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신 문헌공(文憲公) 임휘계
미공(林諱季美公)께서 관직(官職)이 평장사(平章事)로 금자(金紫)광록(光
錄)대부(大夫)벽상(壁上)삼한(三韓)삼중(三重)대광(大匡)태사(太師)에 이
르시고 평원보안군(平原保安君)에 봉작(封爵)되시면서 부안관의 1세(世)
조(祖)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배위(配位)는 정경부인(貞敬夫人) 상당한씨
(上韓黨氏)로 중추원사(中樞院事) 이(履)의 여(女)이십니다.

부안임씨(扶安林氏) 지명 유래는 서기 1414년 부령현과 보안면이 합병

되면서 부안군으로 행정지명이 변경되어 관향(貫鄉) 명칭도 행정지명에
따라 보안(保安)에서 부안(扶安)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입니다.

부안관의 종사(從史)는 1천여(千餘)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란
(戰亂)과 정쟁(政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으신 서하(西
河)공 임휘춘(林諱椿) 선조(先祖)께서는 한 맺힌 일생이라고 볼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우리 부안 종친들은 숭조상문(崇祖尙文)의 정신으로 동고
동락하며 슬기롭게 발전하여 전국임씨의 관향별 인구 순위가 나주(羅
州), 평택(平澤), 부안(扶安)으로 3위가 되었습니다. 이는 선조님들의 음덕
(蔭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안 임씨 종친회가 12월 2일에 ‘부안임씨종보’창간(創刊)을 앞두
고 있다니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친 모두가 주인의식(主人意
識)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자랑스러운 부안 임씨 문화를 창달(暢達)하
시기 바라며 종친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祈願)합니다. 전국임씨중앙회도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마무
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林氏중앙회 회장 林 完 洙

절의공세일제 산신축 예
감히 토지신께 고합니다 이십오대조 할아버
지 소목위(昭穆位)를 모시고 병일이 가
세사를 올립니다 오래도록 보살피 주심의
힘을 입고자 합니다
감히 맑은 술과 과실로써 정진히 올리오니
흠향 하소서

維 歲次丁酉 十月己酉朔 十五日癸亥
山神祝 例
幼學 秉一
敢昭告于 恭修歲事于
土地之神 秉一 恭修歲事于
二十五代祖考 贈 奉翊大夫 三司使
世代遂遠 追慕靡淺 惟禮有限 歲止一薦
時惟孟冬 瞻掃封塋 不勝感慕 謹以
饗 清酌時羞 祇薦歲事 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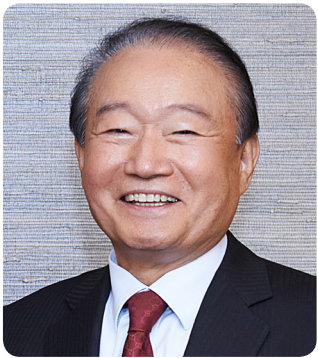
임헌성 감사

절의공세일제 축문 예
감히 할아버지 할머니 소목위께(昭穆位)고
합니다
세대가 수원하고 보니 추모하는 마음이 미천
하여 오직 예가유한 하여 세지를 한번 드리
오니 때는 오직 맹동이 되어 우러러 봉분
을 바라다보니 감모하는 마음 이기지 못하
여 삼가 맑은 술과 시수로써 공손히 세사
를 올리오니 흠향 하소서

維 節義公 歲一祭 祝文
歲次丁酉 十月己酉朔 十五日癸亥
敢昭告于 秉一
二十五代祖孫 秉一
顯 上將軍 軍部令 節義公 府君 之墓
顯 上將軍 軍部令 節義公 府君 之墓
二十五代祖妣 贈 郡夫人 河陰田氏 之墓
敬伸 奠獻 尚
惟時保佑 實賴神休 敢以 酒果
饗 敬伸 奠獻 尚

서하공 세일제

중앙종친회 회보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안임씨 중앙종친회 회보〉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두루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동안 우리 부안임씨 많은 종친들께서 힘써주셔서 종종 대소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대소사의 소식을 전할 소식지가 없어서 다들 아쉬워하기도 했고 누구라도 그 필요성을 느끼셨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출판업무이다보니 여의치 않게 종종 중앙회 소식지가 발간되지 못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 집행부의 수고로 그 창간호가 발간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보 창간에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공을 들여 주신 것에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안임씨 전서공파, 판사공파, 밀직공파 3파가 연합하여 종종 대소사를 진행해온 가운데 이번에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소식지를 출간하게 된 것은 그만큼 종친들의 협력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종친들은 소식지를 통해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부하는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리라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무릇 조상님들을 섬기고 기리는 제례는 사람의 기본 도리이기도 하고, 그 가문의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법도가 얼마나 잘 갖춰지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다보니 직접 참례를 못하고 먼발치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많은 종친들께서 선두에서 술선수범하시는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송구스러우면서도 존경심을 늘 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우리 임씨 가문 전체의 큰 자랑이시자 우리 민족 문학의 대문호이신 서하 임춘(西河 林椿) 할아버님의 문학비를 건립하게 된 것은 뒤늦으나마 우리 자손들의 마음에 큰 자부심으로 가져도 좋을 경사였습니다. 저는 이같은 종종 대소사에 직접 참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미력을 보탠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여러 종친들의 뒤에서 묵묵히 뒤통을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임씨 시조이신 임팔급(林八及) 할아버님은 당나라때 배를

타고 지금의 평성에 오셔서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조정을 섬겨 금성군(錦城君)에 봉해지셨고 충절공(忠節公) 시호를 받으셨습니다. 이후로 벼슬이 이어져 문헌공 임계미(文憲公 林季美) 할아버님은 광록대부 보안군(光祿大夫 保安君)의 직책을 맡으셨고 우리 부안임씨 시조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임씨 가문은 고려말에 무신난(武臣亂)에 화를 입어 서하공(西河公) 할아버님을 비롯하여 조상님들이 박해를 당하고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에는 백호 임제(白湖 林悌) 시인, 임경업(林慶業) 장군 등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유명 인사가 많지 않아 그 연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직에 진출하여 세속정치에 휩쓸리기 보다는 초야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아온 선비정신은 조상님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에 집중해 오신 것도 우리 임씨 가문의 기질이라면 기질이겠는데 그 기질이 오늘날 우리 임씨 종친들이 각계각층에서 자기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게 하는 사유가 아닐까 되짚어보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는 현재의 아버지, 현재는 미래의 아버지라고들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올곧은 선비정신과 책임의식을 잘 계승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일 것이며, 현재 소임에 충실함으로써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미래세대를 양성해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같은 도리와 책무를 잘 지켜가는 데 이번에 창간되는 회보가 매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기쁜 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회보를 집필하고 편집하고 발간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부안임씨 가문의 언관(言官), 사관(史官)으로서 훌륭한 내용들을 잘 전해주시리라 생각하며 창간 축하를 빌어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부안임씨 종친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드리며, 이번 회보 창간에 힘쓰시고 종종 대소사를 이끌어 가시는 종친님들께 거듭거듭 감사인사 올립니다.

문헌공 임계미 할아버님 28세손 **임성기(林盛基, 한미약품 회장)**

부안임씨 중앙종친회 임원 명단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회 장	임 종 호	밀직공파	010-4734-8002
수석부회장	임 한 석	판사공파	010-6804-3747
부 회 장	임 현 린	전서공파	010-3447-1269
	임 영 수	밀직공파	010-7618-9585
부회장겸사무처장	임 종 상	밀직공파	010-5343-3441
고 문	임 용 득	밀직공파	010-6325-2895
	임 현 옥	전서공파	010-2420-1151
자문위원	임 병 인	밀직공파	010-4711-3914
	임 문 기	밀직공파	010-4735-5051
감사	임 종 근	밀직공파	010-5328-9205
	임 현 성	전서공파	010-5465-4413
이사	임 종 훈	밀직공파	010-3792-2132
	임종철	밀직공파	010-2327-2974
	임 종 문	밀직공파	010-2388-8840
	임 총 실	밀직공파	010-3396-3394
	임 종 철	밀직공파	010-5340-4954
	임 용 혁	밀직공파	010-3718-6549
	임 종 선	밀직공파	010-2287-0945
	임 찬 기	밀직공파	010-9023-5693
	임 병 일	밀직공파	010-5470-0163
	임 한 기	밀직공파	010-6237-2978
	임 종 광	밀직공파	010-7600-8082
	임 종 수	밀직공파	010-2388-8840
	임 도 연	밀직공파	010-9553-9369

부안임씨 선조 세일사 행사록

충절공 임팔급 향사 음 10월 초1일, 음 3월 3일 송모각: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제단: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화암리

문헌공 1세 계미 송모사 연천제 양 3월 세째 토요일, 유림화-문헌공, 절의공, 판사공-3위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40-1

절의공 7세 춘, 서하 향사 음 5월 4일 자시, 음 10월 15일 11시 옥천서원: 경북 예천군 감천면 덕율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45-3(가야골)

좌상공 8세 경세 향사 음 10월 15일 11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45-3(가야골)

충덕공 8세 정세 향사 음 10월 15일 11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45-3(가야골)

공해공 9세 숙 향사 음 10월 15일 11시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45-3(가야골)

판사공 9세 택 향사 양 3월 세째 토요일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 40-1

전서공 10세 난수 중앙제 음 9월 9일 11시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다솔리산28(불마미)

전서공 10세 난수 독립문화제 양 4월 22일 11시 세종특별자치시 나성길10-48(독락정)

밀직공 11세 득 총 음10월 13일 염수제(고흥, 모두, 삼정)

세종시와 임난수장군



부안임씨 전서공파조 임난수 중시조는 고려 사람으로 부친 휘 숙(諱叔)으로 순성좌리 공신 금자광록대부 수사공 상주국 보안백이며 모친은 유씨로 진한국 대부인으로 1342년 3월 17일 생하시었다.

기미(서기1679년) 8대손으로 호군을 지낸 찬현이 묘소를 보수하다 지석을 발견 하여 질그릇으로 구워 만든 작은 용기 같은 것으로 글을 읽을 수 있었는데 공의 휘는 난수요 본향은 전라도 부안이요

거향은 충청도 공주 북쪽 삼기촌이다.

지낸 벼슬은 처음 홍복도감록사를 제수받고 산원 숙옹부좌변 행수산원으로 별장 낭장 신호위 정용호군 봉선대부로 자금 어대를 하사 받으셨는데 무관으로 활약하시다 그 후로 문관으로 봉정대부 부평부사, 봉정대부 삼사우윤, 봉순대부 판사복시사, 통헌대부 판중부시사, 봉익대부 전의시사, 가선대부 공조전서 등 11관직을 역임하셨으며 또 고려말기에 탐라를 정벌하는데 큰 공이 있었다고 하였다. 4남 중 장남 모(暮)는 수사, 둘째 목(穆)은 양양도호부사를 지낸 후 공주의 금강위에 정자를 지어 독락정이라 이름 하였으며, 셋째 서(叙)는 충의교위 좌군사직이며, 넷째 흥(興)은 위의장군이다. 중시조님의 지석을 발견하여 벼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러 사기를 고찰해 볼 때 장군의 출생은 고려조 충혜왕 3년이요 탐라를 정벌 한때는 공민왕 23년으로 그 당시 대장은 최 영 장군이었으니 임난수는 비장으로 출전하여 전장에서 탁월한 전략과 32세의 용맹스런 기지를 발휘하여 선봉장으로 맹활약을 하여 왜구와 목호들을 거의 진압하고 성안으로 진입할 때 숨어있던 적으로부터 칼을 맞아 오른팔을 잘리었는데 잘린 팔을 화살 통에 꽂고 계속 직격하여 적을 완전히 섬멸 하였다. 탐라 정벌을 마치고 개경으로 돌아왔을 때 공민왕은 승하하시고, 우왕으로부터 자금어대를 하사받는 특혜를 받았다.

보첩과 사제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기를 돕는 기략을 운영하고 세상을 덮는 공훈을 세웠으므로 토지를 떼어 식읍을 하사하고 품계를 올려 관작을 포상하노라 하였다” 보첩에 또 이르기를 “선덕년간(宣德年間) (1426-1435)에 세종(世宗)께서 사당을 세울 것을 명하시고 중군총재 신 장(申樞)에게 그 사당의 제액을 임씨가묘(林氏家廟)라 써주도록 하시었다” 하였다. 무릇 그 공이 지난 고려 시대에 있었으나 후세에 은덕을 높이 값는 것은 진실로 큰 공이 있지 않으면 능치 못할 일이라 하였고 그 후 청양 현감 김 미(金旻)에게 명하여 제사 하였다. 장군이 돌아가신 해는 영락 정해(서기1407년)로써 조선이 개국한지 16년 후이다.n 동사략(東史略)에 의하면 세종(世宗)2년 경자에 고려유신 길재(吉再), 임난수(林蘭秀) 등 18인을 치제(致祭)하고 4년 임인에 려조의

신하로써 본조에 벼슬하지 않은 임난수를 왕명으로 부조묘(不調廟)에 올려 선액(宣額)하고 토지를 사패(賜牌)하고 세금과 부역을 감면하는 특전을 내리었다. 이는 모두 보첩과 문헌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하면서 본조에서 중시조를 불러 함께 일할 것을 권유했지만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켜 낙향을 결심하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내륙인 충주를 거쳐 양광도(충청도)를 지나 전라도 보안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여 가는 도중 공주 삼기촌(현 세종시)에 도착 지형을 보니 앞에 산(원수산)은 붓끝처럼 뽕족하게 생겼으며, 뒤에 산(전월산)은 수풀림(林)자 처럼 생겼고 앞에는 강이 흐르고 가운데 넓은 농토가 있어 가족 모두 호감이 있어 정착지로 정하고 터를 닦았다. 중

시조께서는 매일 뒷산에 올라 용샘의 물을 정안수로 떠서 상려암에 올라 ‘고려왕이시여 옥체를 보존 하소서’하고 북향 재배 했다. 그리고 어느 봄날 아들을 불러 집 앞에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는데 오늘날에도 고목이 된 은행나무는 600여년 지난 일들을 무언으로 말해주는 듯하다.

중시조 임난수 장군이 살던 생가는 오랜 세월 풍우로 사라지고 그곳에 송모각이 자리 잡고 현재는 임씨도시조 임팔급(林八及)공의 신위를 모시고 매년 음10월3일 향사를 올리고 있다.

부안임씨 중시조 임난수 장군께서 터 잡으시고 세종 임금께서 토지를 사패하고 사당을 세울 것을 명하시고 사당의 제액을 임씨가묘(林氏家廟)라 써 주도록 하고 불천지위로 모시도록 명받아 자손들이 번성하여 집성촌을 이루며 600여년 시조님의 유혼인 유적 유물을 지키며 오손도순 살아왔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서울 과밀 인구 해소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문중 종원들은 하나같이 반대했지만 국가의 대의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차분히 새로운 도시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중시조께서 터 잡은 땅이 웅장한 도시로 변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시조님의 미래를 보는 안목에 감사를 느끼기도 한다. 또한 건설청이나 토지주택공사에서 선조님의 유적 보존에 많은 배려가 있어 독락정 역사공원이나 중시조 생가 복원과 부근 역사공원 중시조 산소 일원 공원화 등 차분히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종원들은 열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 독락문화제행사를 시작 했는데 얼마 전부터 세종시에서 후원해 주고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중시조 탄신 기념행사를 시민과 종원이 참석하는 축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독락정 경내에서 옛날 공주연기장포 즉 유학자들이 강학하던 기호서사가 있었는데 조선 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이 내려져 훼철되었는데 다시 복원되면 문중 종원들의 선조님의 유혼을 받드는 학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서공파 임현방

학사공 사적 약초



공의 성은 임씨(林氏)이고 휘자는 계정(繼積)이다. 처음 관향은 평택(平澤)이었는데 뒤에 부안(扶安)에 봉읍을 받았으므로 이에 부안을 관향으로 삼았다. 시조의 휘자는 팔급(八及)이신데 신라 경순왕 때 벼슬하셨다. 전쟁에 공이 있어 금성군(錦城君)에 봉해지시고 시호는 충절(忠節)이시며 이로부터 관직이 계속 이어져 왔다.

여러 번 전하여 봉익대부이신 시호는 절의(節義)이시고 휘자는 춘(椿)이시고 호는 서하(西河)이신 분은 성리학과 문장에서 이전의 현인들이 미처 드러내지 못한 것을 펼쳐 보이셨으며 문집이 2권 세상에 전한다. 예전의 낙안서원과 공주의 서원에서 제사를 모시는데 이 분이 공의 5대조이다.

증조의 휘자는 숙(淑)이신데 영상좌리공신금자광록대부수상주국보안백이시고, 조는 휘자가 대광(大光)이신데 추성익위공신대광보안군이시고 부친은 휘 득성(得成)이신데 중훈대부사재감정이다.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이한 자질이 있어 어려서부터 뛰어났다. 하늘에서 받은 품성이 높고 명철했으며 성품과 법도가 굳세었다. 학식이 점점 나아지자 가정(稼亭) 이곡(李穀)선생과 묵은(牧隱) 이색(李穡)선생과 양촌(陽村) 권근(權近)선생 등을 따라 배우면서 격물치지의 공부를 익히고 연원의 올바른 소급하여 탐구하니 크게 당시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 늦게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지내다가 한림학사가 되었다. 조정에서 일을 맡을 때는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뿐이었으니 곧 이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품성이요 또한 가훈이기도 했다.

대대로 임금의 교시를 관장하는 나머지에 예문관에서 뜻을 높이 펴며 승명전에 출입하면서 영예롭게 드러남이 비록 지극했으나 본디 성품이 맑고 깨끗하여 스스로를 감춤에 힘쓰고 겸양의 풍도를 깊이 간직하고 명예와 이익의 길을 멀리 피하였으므로 평생의 기이한 절개와 탁월한 행적을 세상 사람들이 거의 듣지 못했다. 임견미가 권력을 잡고 마음대로 일을 꾸미자 조정이 크게 시끄러워졌다. 공은 자취를 감추고 왕래하지 않으며 두문불출하고 고요히 거처하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았다.

공양왕이 홍무(洪武) 22(1389) 기사년에 즉위하였다. 다음해인 경오년(1390)에 주서 길재(吉再)가 관직을 버리고 선산에 은거하니 공도 또한 제학 민유주(閔兪), 주옹(朱顒, 周顒이라고도 함) 등과 뜻이 같고 도가 합하여 함께 물러나 나루를 나누어서 거처하였으니 이 분들이 통진(通津)의 삼학사(三學士)이다.

우리 조선이 한양에 도읍을 정한 뒤에 공의 종조(從祖)이신 전서 휘 난수(蘭秀)께서 은퇴하여 공주 금강 위에 거처하시면서 그 정자를 '독락정(獨樂亭)'이라 하니 임금이 그 절의를 가상히 여겨 한 지역의 강산을 하사하여 포상함으로 후인들이 이에 그 땅에서 제사를 지냈다.

공의 가까운 친척인 임선미(林先味)는 조의생(曹義生), 맹씨(孟民) 등 여러 현인과 더불어 두문동에 은거하였으니 그 일이 나라의 역사에 실려 있다.

공이 나라의 훈벌이며 대대로 벼슬하던 집안으로서 벼슬길에 나아갈

생각이 없이 바닷가 모퉁이에 숨어 살면서 두문불출하여 한가로이 거처하면서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절개를 지켰다. 오직 민유주, 주옹 등과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끌면서 서로 교유하며 날마다 시와 술로 스스로 즐겼다. 시에 말하였다.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는데 흥이 끝이 없네
향기로운 벼와 살찐 물고기가 가는 곳마다 있도다
배부른데 허리에 찬 술병에 흰 술 가득 담아
남쪽 마을 늙은이가 북쪽 마을 늙은이를 만나네

밭가는 일과 독서, 충효로 자손을 가르쳤으며, 가문에 시와 예를 전하는 일과 맑고 소탈한 기풍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였다. 묘소를 마련함에도 풍수를 따지지 않고 오직 골육이 서로 모일 수 있는 곳을 점쳤을 뿐이다. 조석 생계의 자본으로는 나라에서 준 것은 먹지 않고 반드시 고려에서 받은 땅에서 얻은 것으로 공급하였는데 몸을 마칠 때까지 한 결같았으니 백이 숙제가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쫓던 높은 풍모에 부끄럽지 않았다.

공경히 생각건대 우리 태조대왕이 그 절의를 가상히 여기고 학문을 소중히 여겨 여러 번 부르는 명령을 내려 특별히 장단교수를 제수하고 다시 안변부사로 임명하였다. 옥과 비단이 언덕에 휘황찬란하고 명패와 교지가 도로에 나부껴 포상하고 높이는 예를 다 함으로써 격려의 방편으로 삼았으니 국가의 바르고 큰 기운을 넓히고, 후생들이 앙모하는 정을 펼쳐 장차 천하의 후세에 신하된 자들 중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함이니 아아! 풍성하도다. 위대한 성인이 절의를 함양하고 풍교의 넓은 규모를 심는 원대한 계획이다. 그러나 공은 병환으로 사양하고 마침내 일어나지 않았다.

드디어 처음 관직에서 물러나는 날부터 연기와 노을에 의지했으니 이 어찌 두문불출하여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던 여러 현인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인의를 얻은 지조가 사방을 놀라게 하니 완고한 자에게 염치를 알게 하고 나약한 자들을 우뚝 서게 하는 기풍이 만세의 사표가 될 만하다. 비루하고 인색한 자들이 그 교화에 감동하여 곱절로 충효를 생각하고 완고하고 우매한 무리들이 더욱 예의의 소중함을 흠모하게 되었으니 은연중에 술상에서 적의 예봉을 꺾는 것 같은 기상이다. 이것이 우리 임금께서 포상하여 장려하고 총애하여 불러 만세에 충의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공은 하사받은 땅에서 의리를 지키며 끝내 늙어 당시 세상에 소문이 나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 이때를 당하여 전서공은 공주에 물러나 은거하고 휘 선미는 두문동에 은거하였으니 한 가문에 충렬과 도덕이 이와 같이 탁월하였다.

태종조에 정몽주와 길재, 임난수 등 18인을 제사지냈으며, 세종조에 승국 충신 임난수에게 불조지전을 내리고 사원에 편액을 하사하며 공을 새긴 패와 상급을 내리고 다시 관리에게 명하여 제사지내게 했다. 그러나 공은 홀로 포상하여 선양하는 자리에 참가하지 못했으니 나라 사람들이 억울해 할 뿐 만이 아니라 오히려 길 가는 사람들도 탄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진실로 남은 후손과 한미한 족속이 타향 땅에 살면서 초야에

문혀 선조의 천지처럼 높고 일월처럼 밝은 절의를 스스로의 힘으로 밝히고 드러 내지 못했기 때문이니 어찌 탄식을 이길 수 있겠는가? 가히 지사와 영웅의 눈물을 천년의 뒤에도 떨어뜨리게 할 것이다. 이후에 후손들이 추모의 정성을 펼쳐 대략 명나라의 평화 이씨의 예대로 의리로써 시조 충렬공의 별도 사당을 창건하고 부안공과 문정공, 서하공, 학사공의 네 분을 배향하여 봄 가을로 제사를 모시는 뜻을 가졌으나 지금까지도 이루지 못했으니 애통하고 한탄스럽도다. 그뒤로 임진란과 병자란을 지내면서 종가가 또 녹을 회수당하는 재앙이 생겨 선조의 문헌이 다 없어져 남은 것이 없게 되었다. 남해공이 널리 유적을 모아 소략하게나마 종파의 명맥과 연대를 서술했는데 공의 정충과 절의를 천지에 선양하여 밝히지 못하고 일월에 빛나게 하지 못했으니 후손들이 원망하고 사모하는 마음과 사람들이 절여됨을 슬퍼하는 회포가 오래되면 될수록 더욱 새로워졌다. 지금 세상을 당하여 조금씩 임금을 존중하고 어버이를 사랑할 줄 알며 예의와 염치를 가진 자들이 대부분 풍모를 듣고 감동을 일으켰으니, 세상을 돕고 사람의 기강을 세우는데 어찌 작겠는가.

지난 문서를 대략 살펴 실제사실을 삼가 기록하면서 조상을 사모하고 종족을 돈독하게 하는 일로 여긴다.

임학사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는데 흥이 끝이 없네
향기로운 벼와 살쾨 물고기가 곳곳마다 있도다
배부른데 허리에 찬 술병에 흰 술 가득 담아
남쪽 마을 늙은이가 북쪽 마을 늙은이를 만나네

7민학사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니 즐거움이 끝이 없네
닭이며 돼지와 뽕과 삼이 곳곳마다 갈도다
향기로운 벼 있는 집마다 새 술이 익으니
납시하는 늙은이가 고사리캐는 늙은이에게 권하네

주학사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나 한이 없도다
머리 돌려 청산을 보니 베개가 나란하네
오직 조강의 반달은
세 늙은이 비추는 맑은 빛을 바꾸지 않네

밀직공 임문기

행적비(行跡碑)와 오세봉사비(五世奉祀碑)



題, 병마 절제사(兵馬 節制事) 부안임공(扶安林公) 휘(諱) 득충(得忠) 행적비(行跡碑)와 오세봉사비(五世奉祀碑) 문(文) 소고(小考) 휘 득충(諱得忠) 선조님께서는 고려말(高麗末) 병마 절제사겸 서북도 순문사(兵馬 節制事 四北道 巡問使)로 하시는 등 문무겸전(文武兼全)한 인품(人品)으로 그 위업(偉業)이 탁월(卓越) 하시었다. 고려가 이성

계(李成桂)등의 역성혁명(易姓革命)으로 폐망(廢亡)하고 조선(朝鮮)이 개국(開國)함으로 비탄의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풀고 용인(龍仁)산골로 은신(隱身) 하시었다. 그 후 태조(太祖) 이성계가 예우(禮友)를 하여 불렀지만 이를 거절하며 고려국의 신하(臣下)로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굳은 절의(節義)를 지켜, 공께서는 포은정몽주 제(弟)정과 등 7인과 함께 팔판사 근처 두문동에 은거(隱居)하시며 충절(忠節)을 온전히 지켜서 후세인들이 팔판(八判)으로 칭송(稱誦)하셨다. 자세한 행적(行跡)은 비문(碑文)에 소개(紹介)되므로 생략(省略)하며, 1993년 사단법인 고려역사(社團法人 高麗歷史)

선양회(宣揚會)가 설립되어 2000년 12월에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고려대전(高麗大殿)이 웅대하게 건립되어 고려 왕조 34위와 충현공 열사(忠賢公 烈士) 327위가 봉안(奉安)되어 매년 궁중제례에 준하여 제향(祭香)을 드리고 있어 후손 모두는 동기감응(同氣感應)됨을 실감케 되어 기쁘기 한량 없도다. 위패는 고대전 동편 수렬(數列) 제166번에 봉안되어 있으니 기회가 있으면 참제(參祭)하여 선조님의 고결한 충절을 느껴보면 좋겠다.

이번 기회에 충의정신(忠義精神)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충(忠)은 글자 모양에서 보듯이 중(中) + 심(心) = 충(忠)으로 마음에 충심을 잡는다. 스스로 자기의 주체적 충심을 잡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조직사회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이 잡힌 마



음의 자각(自覺)이다. 그러므로 충(忠)이 있는 사람은 책임감과 의무감이 강하고 자주(自主) 자립(自立)하는 생활의식(生活意識)을 가지게 되고 반면 불의(不義)나 불합리(不合理)한 일이나 사악(邪惡)한 일에 매혹(魅惑)되거나 굴(屈)하지 않는다.

맹자(孟子)는 교인지위충(教人之謂忠)이라하여 사람을 가르쳐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곧 충(忠)이라고 했다. 중국(中國) 송(宋)나라의 주자(朱子)선생은 진기지위충(盡己之謂忠)이라하여 진심(盡心)과 최선(最善)을 다하여 나가는 것이 곧 충(忠)이라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유사상(固有思想)은 효제충신(孝悌忠信)으로 실천도덕(實踐道德)을 일관(一貫)하는 최고(最高)의 이념(理念)으로 삼아서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平) 천하(天下)를 본질(本質)로 하고 있다.

또한 충(忠)은 중심(中心)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편불기(不偏不倚)한 중정(中正)을 뜻한다.

따라서 충은 자기의 마음을 다하는 진심(盡心)이요 정성(精誠)스러움을 다하는 성실(誠實)이요, 사람의 참 마음을 충(忠)이라 한다.

밀직공 30世 林永秀

부안임씨 종친회장 취임사



전국의 부안임씨(扶安林氏) 종친 여러분! 어느 해보다 나라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격랑(激浪)의 한 해 정유년(丁酉年)이 저물어 가는 추수동장(秋收冬藏)의 계절입니다. 그 동안 공사 간에 분망한 가운데도 종친회에 관심과 열성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안임씨(扶安林氏) 시조(始祖)이신 계(季) 자(字) 미(美) 자(字) 할아버지의 29세손(世孫) 판사공파(判事公派) 임한석(林瀚錫)입니다. 부안임씨(扶安林氏) 득관시조(得貫始祖) 계(季) 자(字) 미(美) 자(字) 할아버지께서는 고려 현종(顯宗) 때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하시고 관직이 금자광록대부 벽상삼한삼중대광 태사(金紫光祿大夫 壁上三韓三重大匡 太師)에 이르렀으나 왕으로부터 오해를 받아 뱃놀이를 빙자하여 피신하던 차에 돌아오라는 왕명에도 서해상으로 나아가 홀연히 풍랑을 만나 파도에 밀려 지금의 부안군 보안면 상림리(上林里) 포구에 닿아 터를 잡아 정착하였습니다.

이후에 왕으로부터 오해가 풀려 누명(陋名)을 벗게 되어 조정으로부터 보안현(保安縣)의 수령인 보안백(保安伯)으로 봉작(封爵)되어 관향(貫鄕)을 보안(保安)으로 삼고 '보안임씨(保安林氏)' 집성촌을 이루어 세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안 임씨(保安林氏)의 시발(始發)입니다. 당시에 보안현은 지금의 보안면과 줄포면 그리고 진서면과 변산면을 포함한 부안의 동남부지역이고, 부령현은 지금의 부안을 동진면 상·하서면과 주산면 백산면을 포함한 부안군의 서북지역에 해당 했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된 후 조선조 태종14년(1416년)에 이르러 부령현(扶寧縣)의 '부(扶)'와 보안현(保安縣)의 '안(安)'을 한 글자씩 따서 합하여부안(扶安)으로 개칭(改稱)하고 '부안현(扶安縣)'으로 병합(併合)하여 부르게 되니 이제 정명(定名) 600 년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보안임씨(保安林氏)'를 '부안임씨(扶安林氏)'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부안임씨(扶安林氏)의 뿌리이고 탯자리인 부안(扶安) 지역은 예나 지금이나 들과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풍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어염시초(魚鹽柴草)와 물산(物産)이 풍족하고 인심이 후덕하여 길(吉)한 땅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영조대왕이 어사(御使) 박문수를 불러 "조선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묻자 "전라도 부안(扶安)입니다."라고 했다는 구전(口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안(扶安)은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이라 하여 '생거부안(生居扶安)'이라 하며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머물기를 갈망하는 터전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라는 문집으로 유명한 대학

자인 이규보(李奎報)는 "부안 변산(邊山)이라는 곳은 우리나라의 재목(材木) 창고로, 궁실(宮室)을 수리하고 짓느라 해마다 건물 지을 나무를 베어내지만, 아름답드리나무와 치솟은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조선 전기 성종 때 간행된 인문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능가산(楞伽山) 또는 영주산(靈主山)으로 불리는 "변산(邊山)"은 보안현에서 서쪽으로 25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봉우리들이 백여리를 빙 둘러 있고, 높고 큰 산이 첩첩이 싸여 있으며 바위와 골짜기가 깊숙하고 서해바다에 연하여 있어 궁실과 배의 재목(材木)은 고려 때부터 여기에서 얻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교국가인 조선시대에 서열(庶孽)의 차별혁명(差別革罷)을 주창(主唱)한 소설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지은 허균(許筠)은 이곳 부안에 머물며 이상향(理想鄕)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조선 중엽에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개혁안을 제시해 이익(李瀾)과 정약용에게 실학사상의 단초를 제공한 반계(潘溪) 유형원(柳馨遠)은 이곳 부안으로 낙향하여 국가 개혁안의 교과서라 평가받는'반계수록(潘溪隨錄)'을 쓰며 이상사회(理想社會)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부안임씨 종친여러분!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도 작은 샘에서 발원(發源)이 되어 여러 갈래(派)로 나누어지듯이 사람들 성씨(姓氏)도 천 갈래가 한 개 본(本)에서 나오고, 만 개 파(派)가 동일한 원류(源流)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어떤 파(派)에 속하든 우리는 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줄기이고 가지입니다. 부안임씨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제상산(提常山)에 역세존영(歷世尊靈)을 모신 연천재(鸞天齋)와 사당인 숭모사(崇慕祠)에 1세조 문헌공(文憲公) 계미(季美) 할아버지, 7세조 서하공(西河公) 춘(椿) 할아버지, 9세조 판사공(判事公) 택(澤) 할아버지 세 선조의 위패(位牌)를 모시고 매년 3월 셋째주 토요일에 부안 향교(鄕校) 주관으로 숭모사춘향대제(崇慕祠春享大祭)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부안 임씨 남녀노소 모두 함께 이때 오셔서 참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동안 누대에 걸쳐 부안임씨의 번창과 영복(榮福)을 위해 헌신해 오신 종친회 전임 회장님들과 임원진 여러분의 험격한 공로에 찬사와 함께 머리 숙여 존경의 예를 바치며, 우리 종친들 남녀노소 모두 부안임씨(扶安林氏) 문중(門中)에서 태어났음을 자랑으로 삼고 자손만대까지 길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종친 간에 서로 돕고 이끌고 밀어주고 종친회 발전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2일 판사공파 회장 임한석

부안임씨 중앙 종친회 차기임원 명단

밀직공파 고문 임종호 010-4734-8002 / **고문** 임영수 010-7618-9585 / **이사** 임종철 010-2327-2974 / **이사** 임도연 010-9553-9369 / **이사** 임종훈 010-3792-2132 / **감사** 임종상 010-5343-3441

판사공파 고문 임남진 010-5368-5725 / **고문** 임한태 010-3659-8970 / **회장** 임한석 010-6804-3747 / **총무** 임영하 010-8642-2255 / **재무** 임진식 010-2634-0594 / **이사** 임한영 010-3654-9106 / **이사** 임윤근 010-8601-5257 / **이사** 임부식 010-6657-3212 / **이사** 임석근 010-2656-3610 / **이사** 임병덕 010-3657-9203

전서공파 고문 임현옥 010-2420-1151 / **이사** 임현방 010-5458-2598 / **이사** 임현길 010-5438-2004 / **감사** 임현성 010-5465-4413